

##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II.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한국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3.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초기 내국인 사역자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개명)’, ‘기독교회’ 및 ‘기독교의교회’가 일제강점기 때인 1924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눈물겹게 행한 선교의 노력들이 1941년 4월 1일부터 일제가 시행한 새로운 종교법과 태평양전쟁(1941-45년까지 연합국과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해방 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흔적은 인천송현성결교회와 인천제일장로교회(통합) 뿐이다. 그리고 요츠야선교부(일본 조선인기독교회들 및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던 전도자들 가운데 한국전쟁(1950-53) 이전까지 기독교회선교부로 이적(移籍)하여 사역한 목사들은 성낙소, 김문화, 이난기, 윤낙영 뿐이었다. 김문화는 일제강점기 때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9년 2월초에 별세하였고, 이난기는 1949년에 이미 68세의 고령이었으며, 윤낙영은 1955년 7월 6일 영등포침례교회에 부임하였다. 이로써 끝까지 살아남아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간 인물은 1964년에 별세한 필운동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담임목사 성낙소(1890-1964) 뿐이었다.

기독교회선교부에서 1937년 이후 해방 전까지 사역했던 목회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교회는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와 최상현 목사의 돈암동그리스도(인)의교회 뿐이었다. 이 두 개의 교회들이 해방 후 한국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새 출발을 위해 과연 겨자씨가 되었다. 존 채이스(John T. Chase)는 1937년 2월에 발행을 시작한 격월간 <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KM)>에 ‘한국인 겨자씨’(Korean Mustard Seeds)란 칼럼란을 만들어 글을 쓰곤 하였는데, 신당동, 돈암동, 산돈암동, 내수동, 정릉리 등에 세워진 초창기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들 초기 교회들 가운데 과연 이 돈암동교회와 내수동교회(1943년 필운동으로 이전)는 해방 전뿐만 아니라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속 4장, 7계 11장)

해방 후에도 한국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을 위한 겨자씨들 곧 남겨진 종자(파종)씨앗들이었다. 이 두 개의 교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 환란기간(great tribulation)에 남겨 놓으신 파종겨자씨들이었으며,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던 최상현과 성낙소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들이었다. 만일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또 채이스가 계획했던 대로 신당

동, 돈암동, 산돈암동, 내수동, 정릉리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번듯한 예배당건축이 이뤄졌더라면, 상황이 발전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고, 채이스가 모금한 돈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에 의해서 1955년 이후 39개의 예배당들을 수리하고 1-2개의 예배당을 구입하는데 모두 쓰였다.

존 채이스 선교사는 1948년 한국에 주재한 선교사가 없고,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H. Martin)이 가끔씩 돕는 어려운 상황에서 6개 교회 곧 돈암동교회(최상현), 필운동교회(성낙소), 위동교회(성수경, 성낙소의 아들), 공덕교회(백낙중), 용산교회(이난기), 아현동교회(윤낙영)를 보고하였다<“The Year 1948,” KM, 1949년 3월호>. 다시 채이스는 1948년 말까지 10개 교회, 7명의 한국인 목회자에 의해서 총 116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KM, 1949년 7월호>. 그리고 존 힐(John J. Hill)은 이듬해 1949년 5월까지 15개 교회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힐은 1949년 5월 1일에 신탄진을 방문하였는데 임대한 오래된 창고건물에 250명이 모였다고 했고, 부강교회에서는 신화신학연구회가 주최한 백일성경공부가 김은석 목사와 의사 신현창 장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썼다<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CS)*, 25 June 1949: 405>. 그리고 나서 동년 7월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채이스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총 19개라고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교회는 두 개였지만, 지금은 한국에 형제들이 서 있는 곳에 열아홉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선 것입니다”(There were two congregations that survived the war, but now there are in Korea NINETEEN churches standing where you brethren stand. That is upon Jesus Christ and His Word.)<KM, 1949년 7월호>. 여기에서 “형제들이 서 있는 곳”이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신약성경교회(New Testament Christianity)와 그리스도교 신앙(Christian beliefs)을 말한다. 그로부터 7년밖에 지나지 아니한 1956년에 해롤드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FCK)이란 선교지 6월호에서 교회숫자를 75개로 보고하였다.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이렇게 갑자기 큰 숫자로 불어난 배경의 중심에는 충청이남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부강교회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연구회의 백일성경공부가 있었다.

채이스는 1947년 10월에 최상현 목사로부터 충청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40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인근에 두 개의 교회들이 더 세워졌다는 보고를 받았다<KM, 1947년 12월호>. 이 보고를 받고나서 채이스는 최상현으로부터 신약성경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침례를 받았던 장로교출신 내과의사가 이들 신생교회들을 세운 목사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채이스가 최상현의 보고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현 목사가 보고한 내용이 부강지역의 내과의사 신현창 장로와 부강교회의 담임목사 김은석을 언급한 것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이다.

박점상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 가족이 서울 북아현동에 있을 때 박점상은 이웃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의 교제는 일본에 거주할 당시에

시작되었다.) 김은석 목사가 아직 그리스도(인)의교회로 환원하기 이전인지라 재건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을 탐색하였는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1946년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로 환원하였다. 김은석은, 비록 그리스도(인)의교회가 성령운동에서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았지만, 침례와 주의 만찬 등의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점상은 1947년에 부장으로 내려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일하며 부강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in&wr\\_id=27&page=10](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in&wr_id=27&page=10)].



김은석 목사 (For Christ in Korea, 1957년 9월판)

이 무렵 곧 1947-48년에 부강교회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는 기독교회선교부에 신약성경교회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는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H. Martin)이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돕고 있을 때였다. 통역은 미군정 연락관이었던 최상현 목사였다. 김은석 목사의 요청을 받은 후 성낙소, 최상현, 할 마틴 군목이 한 두 차례씩 이 교회에 내려가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가르쳤다(KM, 1947년 12월호). 김찬영 목사도 김은석 목사가 할 마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1864-1936)를 중심으로〉(한성신학교, 1991): 132]. 존 힐도 충청이남에 세워진 교회들의 상당수가 김은석 목사의 공덕이라고 말하면서 “김은석은 나중에 세워진 이들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를 세우는데 공헌하였고, 미 공군 군목, 할 마틴을 통해서도 교육과 계몽이 상당히 이루어졌다”[존 힐,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썰메론〉(한국성서신학교, 1972년 4월 18일)]고 하였다. 해롤드 테일러도 한국의 환원운동가 세 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김은석을 소개하면서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 of about 25 congregations in South Korea)라고 하였다[“One Way,” FCK, 1958년 2월호].

신약성경기독교를 표방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초기 목회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다. 몇 분 안 되는 목회자들 가운데 동석기,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오현팔, 최춘선과 같은 애국지사들과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다섯 개의 교회들 곧 신당정교회(김요한), 돈암정교회(최상현), 내수정교회(성낙소), 산돈암정교회(김문화) 및 정릉리교회(박판조)는 모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서 1940-45년 사이에 성낙소를 필두로 이들 목회자들은 일경에 불려가 모진 매를 맞았고, 김요한은 세 차례나 투옥된 후유증으로 1944년 6월 26일에 목회를 접었으며, 김문화는 옥고를 치른 후 그 후유증으로 1949년 2월초에 별세하였다. 결국 1944년 6월 30일에 이들 다섯 개의 교회들은 모두

폐쇄조치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정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최상현과 내수정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성낙소는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예배를 빠트리지 않았다[KM, 1946년 5월호; 성낙소, <신약교회 목회학>(제12장, 3절, 2조, 1)]. 채이스 선교사는 이 사실을 1941년 초와 1947년 초에 단기간 입국하여 직접 확인한바가 있다.

한때 <신학세계>의 편집인이었던 최상현은 해방 후 미군정 연락관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지켜냈고, 한의사(무면허)였던 성낙소는 일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한약방을 열어 생계유지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 더불어 성낙소의 필운동그리스도(인)교회(46년 개명)에서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일군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독립투사 오현팔 목사의 후손들이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에 출석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오현팔의 손자인 오수강 목사는 성낙소의 손녀와 결혼하였다. 1919년에 장로교회로 개척했다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폐쇄 당했던 자신의 교회를 해방 직후에 그리스도(인)의교회로 복원한 오현팔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 바친 김은석과 연락하고 지낸 사이였고, 미국 일리노이 주 소재 링컨기독교대학교 출신과 재학생들이 합심하여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전신인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설립할 당시 설립상임위원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김포에 그리스도(인)의교회를 세운 애국지사 최춘선 목사는 김포지역에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거부였으나 6·25동란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별세 직전 30년간을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고, 별세 직전 몇 년간 세상에 '맨발의 천사'로 알려졌다.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선교사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힐 선교사 가족조차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에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사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 해 가을에 채이스가 협력하여 세운 다섯 개의 교회들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불법집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할 무렵 존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체류하였다. 그 기간에 형사들이 선교사를 따라 붙었고, 채이스와 만나는 사람들을 경찰서에 불러 조사하고 주고받은 모든 이야기를 써서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채이스는 자신의 존재가 이들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국하였다. 채이스는 한국인 목회자들이 선교사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목회자들은 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는 것에 개의치 않고 채이스와 접촉하였다<KM, 1945년 2월호>.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제9장 대동아 전쟁과 교회 박해'에 따르면, 1940년 가을에 총독부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교파의 대표들을 피어선 성경신학교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였다.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도 김문화, 최상현, 성낙소가 참석하였으나 가입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서 성낙소는 모진 매를 맞았으며, 성낙소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형사가 풀어주어 다행히 옥고는 면하였으나 김요한과 김문화는 나중에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당시 힘 있는 교파들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에 면죄부를 주었으나 신약성경기독교를 표방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남았다. 그리스도(인)의교회(‘기독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당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한편 도쿄 요츠야선교부에서는 1941년 1월 21일 일부 목회자들의 갑작스런 요구에 의해 회합을 가졌는데, 요구한 측에서 다른 3개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고의로 통보를 누락한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커닝햄 부인과 다른 선교사들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사역자 4명과 조선인교회 사역자 이원균과 이성영이 일본기독교단에 의 가입을 다수결로 밀어붙였다<"A Statement of Facts," Tokyo Christian(TC), April 1941, 40 no.6, 3>. 전 서울기독교대학교 백종구 교수의 논문,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17개 교회들도 이인범 목사의 주도로 1945년 7월 19일에 조직된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였다[서정민, <한일 기독교 관계사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23-337; 성낙소, ‘제6장 포교 관리자와 동지 김상준 목사 결탁,’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하지만 날짜로만 보면, 1943년 9월 17일에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신신근(平山武雄)에 의해서<조선총독부관보, 5020호, 14면(소화18년 10월 23일)> 이인범은 이미 1943년 9월 30일 포교폐지가 된 상태였다<조선총독부관보, 5024호, 20면(소화18년 10월 2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교회들이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일제가 1940년대 초부터 각 교단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고, 가입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가입을 주도한 자가 제1대 포교관리자 이인범이었을 수 있고, 제2대 포교관리자 신신근이었을 수도 있다. 일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종전 후 ‘일본기독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고, 이 가운데 문을 닫은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살아남았다. 반면에 요츠야선교부 소속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교회들은 해방 후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요츠야선교부 소속이었던 이난기 목사(용산교회)와 윤낙영 목사(아현동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합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채이스 선교사의 디모테 박판조 목사는 소련군정이 들어선 이북(초도리기독교회)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김요한은 세 차례나 투옥된 후유증으로 1944년 6월 26일에 목회와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직을 접었으며, 김문화는 옥고의 후유증으로 1949년 2월초에 별세하였다. 그리고 최상현 목사는 6·25동란 때 공산군에 납북되었고, 백낙중 목사는 공산군에 피살되었다. 채이스의 사역자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은 목회자는 환갑을 갓 넘긴 성낙

소 목사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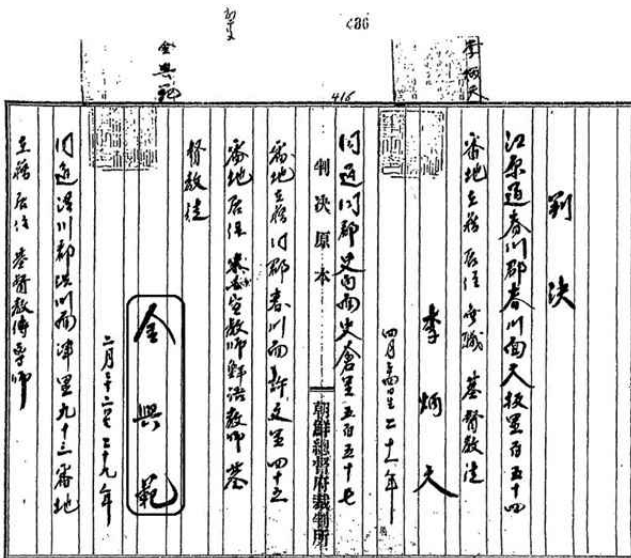
1) 김요한 목사



김요한 목사, 1937년  
 밀샵스 대학(Millsaps college,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수리학과를 졸업하였고, 에모리 대학교  
 (Emory University, 조지아 주 애틀랜타)  
 에서 B.D.(오늘의 M.Div)를 받았다.

김요한(金約翰) 목사는 ‘기독교회’ 선교부의 제1호 목사이자 한국인성경훈련원의 제1호 학생이었다. 또 ‘기독교회’의 제3대 포교관리자였다. 본명은 김홍범(金興範)이며, 동아일보에 따르면, 원산 출생이다. 김요한의 생년월일은,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1919년 6월 12일)에 따르면, 1896(명치29)년 2월 22일생이다 <<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그러나 동아일보에는 1893년생쯤으로 나타나있다. 호적나이와 실제나이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김요한은 오산고등보통학교(오산고제), 협성신학교, 밀샵스대학(Millsaps College, 수리학과),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 B.D)에서 공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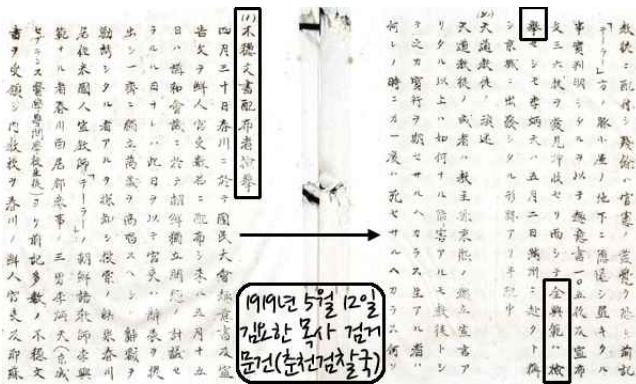
김요한은 1919년 독립만세사건 당시 춘천감리교회의 목사였고, 테일러 선교사의 한국어 교사였으며, 강원도 춘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대회취지서’ 배포자로 검거되었다<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内地 六’(문서철명), ‘騷擾事件ニ關スル民情彙報(第十六報)’(문서제목), ‘騷密第1731號;秘受5479號’(大正八年五月十二日 接受, 主管 政務局手決, 第二課印)>. 또 김요한은 춘천검찰국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병천, 원익상과 함께 1919년 6월 12일 조선총독부재판소 경성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 판결문에 적힌 김요한의 직업



이병천(무직, 세브란스전문학교 졸업), 김요한(홍범)(목사, 조선어 교사) 원익상 전도사의 조선총독부재판소 경성지방법원 판결문본(1919.06.12)은 “목사, 조선어 교사”였다<‘김홍범’; ‘독립운동사 제2권: 삼일운동사(상) - 2 인제군(麟蹄郡)의 운동’(공훈전자사료관, <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다음의 인용문은 1919년 5월 12일 김요한(홍범) 목사 검거문건(춘천검찰국) 가운데 726-727쪽의 일부이다[독립운동사자료집 6: 삼일운동사자료집-4. 기독교도]<<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2. 강원지역의 3·1독립운동’

<강원도사 제8권 일제강점기>(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3): 200-202)],



4월 23일 경성 세브란스전문학교 졸업생 이병천(李炳天)이라는 자가 경성으로부터 임시정부 선포문을 다수 가지고 와서 이것을 춘천(春川)에 있는 미국 선교사 테일러의 조선어 교사 김흥범(金興範)에게 교부하여 널리 관민에 반포·주지시키도록 위탁하였다. 김(金)은 당시 전도사 회의를 위해 춘천에 와있던 홍천(洪川)교회당의 전도사 원익상(元翊常)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를 교부하였던 바, 원(元)은 그 날로 춘천에 거주하는 조선인

관리 수 명에 대하여 이를 보이고, 4월 15일 마침 파리강화회의에 조선독립문제가 상정되어 토의되는 당일이므로 이날을 기하여 조선인 관공리는 일제히 사직을 결행하고, 인민은 다시 맹렬히 독립운동을 할 계획을 말하며 찬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하자, 다시 다른 지방으로 널리 선전 유포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착수 중에 있었다. 이 사실을 탐지하였으므로 관계자를 전부 검거하여 전술(前述)한 불온 문서 수백 장을 미국인 선교사 테일러의 집돼지 우리 안의 흙 속에 숨겨 둔 것을 발견, 압수하였다.... [중략] 선교사 스토르크스는 4월 중에 임시로 경성에 소집되어, 귀가 후 선교사 테일러의 조선어 교사 김흥범(金興範)에게 임시정부선포문 및 불온 문서 1매를 아무 말 없이 교부한 사실이 있었음을 김흥범이 공술(供述)하였다. 그 후 재조사할 때 동인(同人)은 전에 했던 공술을 취소하고 부인하였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이후 김요한(흥범)의 포교계(경기도 가평군 내면 읍내리 503번지)가 남감리교회로부터 제출된 것은 1921년 10월 25일이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2786호 2면(대정 10년 11월 25일)>, 포교폐지계가 제출된 것은 1923년 3월 12일이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97호 8면(대정 12년 4월 11일)>. 미국 유학을 위해서 목회를 그만 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출국을 위해서 춘천 집을 떠난 것은 1923년 10월 18일이었다. 이 사실이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이 실렸다. “김흥범씨외유, 강원 춘천군 남감리교회 전도사 김흥범씨는 미국에 유람코자 10월 18일에 경성을 향하여 출발하였더라(춘천)”<동아일보, 1923년 11월 2일자>. 김요한이 밀랩스대학(Millsaps College)의 수리학과를 졸업한 후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귀국하자 다시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그의 귀국 소식을 전하였다.

미국에 부급한 김흥범씨 귀향. 입죽 오산고등보통학교(오산고제)를 졸업하고 다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던, 김흥범씨(38)는 지난 1924년 미국에 건너가서 「미쓰쓰피, 주 「밀랩스」대학(Millsaps College)에서 수리학과를 마치고 다시 1928년 「조지아, 주 「엠오리」대학 신학대에 입학하여 작년 8월 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신학사의 학위를 어더가지고 이번 귀국하였는데 동씨는 원산(元山) 출생이며 장차 교육계를 위하여 진력하리라고 한다<동아일보, 1931년 1월 17일자>.

이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유추해볼 때, 김요한은 대략 1893년에 출생하였고, 춘천 검찰국에 검거된 1919년은 대략 26세 때였다. 그리고 30살 무렵에 미국에 건너가 학부

와 대학원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때가 38세였고, 1937년에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를 만난 때는 4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기독교회선교부’의 제2호 목사였던 최상현이 1891년생이고, 제3호 목사였던 성낙소가 1890년생이다. 이들은 1905년생이었던 채이스보다 대체로 10-15살 더 많았다.

김요한은 1937년에 채이스의 한국어 가정교사로 채용되었다가 ‘기독교회’ 곧 그리스도(인)의교회로 환원하였다. 김요한은 춘천감리교회 목사 때인 20대 초중반 때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력자였다. 40대 초반에 이르러서 김요한은 비로소 신약성경교회를 만나게 되었다. 채이스와 매일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빌립이 에디 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김요한은 채이스에게 자신도 내시처럼 침례를 받고 싶다고 피력하였고, 채이스는 김요한 목사 부부에게 침례를 베풀었다<Korean Messenger(KM), 1937년 4월호>.

채이스는 기독교회선교부 건물 지하실에 한국인성경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개설하였는데, 김요한은 이 학교의 제1호 학생이 되어 4년간 그리스도(인)의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김요한은 채이스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에 제1호 교재로 소개한 소책자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그리스도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저명한 목사 P. H. 웰시머(Welshimer)가 저술한 20쪽짜리 전도용으로써 제목이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이다.



신당정기독교회 창립주년기념(1938년 3월 6일)  
우측에 존 채이스 선교사, 그 앞에 김요한 목사, 그 옆에 강명석 목사  
(설교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좌측 끝에 박판조 전도사

1937년 2월에 서울시 안에 인구 3만여 명이 살지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정집을 임대하였고, 김요한 목사가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그 집에서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채이스의 제1교회가 ‘기독교회 신당정교회’였다. 채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존 J. 힐(John J. Hill)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한바가 있다. 채이스는 이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존 T. 채이스에서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

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아십계도 관보에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제출된 날짜(月日)가 누락되었다.

1941년 4월 1일 새로운 종교법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선교사들은 입국활동이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해 12월 7일 아침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 주의 오아후 섬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에 기습 공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전쟁(1941-45년까지 연합국과 일본과의 전쟁)까지 발발하였다. 게다가 해방 때까지 일제의 발악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신사참배는 말할 것 없고, 행사 때마다 국가 합창(일본국가 기미가요), 동방요배(일왕이 사는 곳을 향한 궁성요배), 전사 장병 묵도, 황국신민서사 낭독,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강요하였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 일장기를 매달게 하였고, 1942년 이후에는 예배 시작 전에 천황 사진을 앞에 놓고 동방요배까지 강요하였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 김요한은 세 차례나 투옥되었다. 채이스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다섯 개의 교회들 곧 신당정교회(김요한), 돈암정교회(최상현), 내수정교회(성낙소), 산돈암정교회(김문화) 및 정릉리교회(박판조)가 모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김요한은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폐지계 제출을, 6월 30일에는 이들 교회들의 포교자 및 포교소 폐지계를 제출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채이스 선교사는 1947년 1-2월 중 어느 몫시 추운 날 서울거리를 걷고 있다가 우연히 김요한 목사를 만났다. 김요한은 채이스에게 해방 전에 세 차례나 옥고를 치른 후 자신은 목회사역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예전 사역자들과의 접촉〉(Workers Contacted), KM, 1947년 5월호). 안타깝게도 김요한 목사의 50대 중반이후의 소식은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 2) 최상현 목사



최상현 목사(1891-공산군에 피납)  
연희전문학교 제회 졸업, 연경대학교(수학)  
협성대학교 졸업, <신학세계> 편집인 역임

최상현(崔相鉉)은 1891년 12월 27일 평안남도 용강군의 향구 마을인 신녕면에서 아버지 최치홍(崔致鴻)의 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청송(靑松)이었다. 최상현은 진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학을 공부하였고, 진남포의 삼송학교(三崇學校)를 다녔다. 일제에 재산을 몰수당하여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1912년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무렵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상현은 연희전문학교 졸업반이었던 1919년 3·1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로 발송하는 일을 맡았다. 최상현은 그달

木浦	宣川	順天	三陟	洪城	新羅	鳳山	湖城	金海	群山	地名
吳錫均	姜基一	李觀景	金源大	柳丙秀	宋濟元	田養暖	許鏞	金聲哲	李堂煥	代表者名
		田孝成	金夏卿	金在鎬		安斗愛	金澄柱	張昌鎰	朴相玉	代表者名
仁川	石橋	仁寺洞	尚洞	宋橋	勝洞	貞洞	東大門	批地	批地	代表者名
辛永默	申鉉大	趙鎮萬	金漢泳	尹福榮	洪東璇	洪東德	盧俊鐸	崔相鎰	金翼俊	代表者名
	吳天錫	金相滿	趙註鎬	尹炳宜	金應集	尹權	金成鎬	李淳鏢		代表者名
										1085

야소교청년연합회 출석단체 및 대표자명단  
조선선교사건관계서록(1921년/대정 10년 5월 7일)

25일에 연희전문학교 문과(철학과 신학)를 제 1회로 졸업하였고, 동대문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1년간 시무하면서, 연희전문학교 조교수와 동창회 회장직을 겸임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에 최상현은 독립선언서를 영역한 건(件)으로 체포되어 얼마간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기독교문사,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801], 중국에 망명(亡命)하던 중 연경대학교에서 잠시 수학하였으며, 미국으로 가려다가 실패하여 귀국하였다. 그리고 나서 최상현은 1921년 3월 동아일보에 <인물평정(人物評定)의 표준론(標準論)>을 연재하면서 문필활동을 시작하였고, 야소교청년연합회 동대문지역 대표를 맡아 활동하였다.

최상현은 숭실중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이미 목사가 되고자했기 때문에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학창시절에 3

권으로 된 <세계 위인전>을 펴내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1922년 4월 <신학세계>의 편집을 맡으면서 신앙 및 역사 교양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또 최상현은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영데이>(Young Day)를 시작하였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최상현은 1920년대에 전영택(田榮澤), 임영빈(林英彬), 방인근(方仁根), 이은상(李殷相) 등과 함께 기독교문학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최상현은 협성신학교를 졸업 후 1929년 본처사역자로 미국 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 안수를 받았다[‘최상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은대,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쿰란출판사, 2007): 20-45].

최상현이 존 T. 채이스(John T. Chase)를 만난 시점은 집사목사 안수를 받고 궁정교회에 부임하여 첫 목회를 하다가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긴 후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에 관련된 일을 보던 때였다. 최상현은 자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갔다. 그 방문의 결과로 최상현은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학습하기 시작하였고<"Notes From the Hermit Kingdom," CS, 19 June 1937: 553; "Methodist Minister Becomes Christian Only," CS, 20 November 1937: 1081>, 머지않아 성경적인 침례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으며, 1937년 9월 1일에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다<"Another Preacher Accepts New Testament Christianity," KM, October 1937, 1; "The Gospel Wins Another Denominational Preacher," CS, 9 October 1937: 937>. 어느 날 최상현은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감리교회를 탈퇴하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으로서 그리스도(인)의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교사가 말하기를, “아 그러세요. 자랑스럽겠군요?” 그러자 최상현 목사가 대답하기를, “예,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



1938년 10월 16일  
 돈암정기독교교회 창립주년 기념촬영(1938년 10월 16일)  
 좌측 두 번째 최상현 목사, 뒷줄 네 번째 존 T. 채이스 선교사

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현은 채이스의 제2교회 사역자가 되어 1937년 10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린 돈암정기독교교회를 창립하였다<“Korean Mustard Seeds,” KM, December 1937: 2>. 최상현이 기독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규칙 제2조의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04호 4면(소화 13년 1월 24일)>. 채이스는 최상현이 1937년 10월 17일 제2호 교회인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를 개척하자 동년 11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일)>, 12월 2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16호 6면(소화 13년 2월 7일)>.

최상현은 1940년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194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해서 지원이 끊긴데다가 그해 12월 7일에 태평양전쟁까지 발발한 준엄한 상황에서 일본기독교회 조선교회 가입, 신사참배 및 동방요배를 거부함으로써 교회를 폐쇄당한 뒤에도 비밀리에 모여서 주일을 지켰다<KM, 1946년 5월호>. 그 때의 일을 셋째 딸 최윤숙 권사는 진술하기를,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는 항상 전세방이었다. 경찰들에게 끊임없이 추격을 당하던 이래로 교회는 자주 이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다른 예배도 결코 빠뜨린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 아들 최윤권 목사는 “최상현 목사는 일본 신사 사당에서 참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을 구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해초와 새우를 이집 저집 팔러 다녔다”고 하였다[이은대,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쿠틀출판사, 2007): 391, 399].

해방 후 최상현은 1946년 봄에 채이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미군정에 소속되어 한국인과의 연락책(아놀드 장관의 고문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전하였다<KM, 1946년 5월호>. 그리고 나서 1947년 1월 중순경에 채이스 선교사가 주일날 돈암동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였는데, 당시 돈암동교회는 일본 적산가옥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집 2층에 있는 두 개의 방에 성인남녀와 학생들까지 40여명이 모였다. 참석한 다수의 성도는 채이스가 1936-41년 사이에 침례를 베푼 성도들이었다. 그날 채이스는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채이스로서는 돈암동 그리스도(인)의교회가 일제의 압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신약 성경교회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감명 깊은 순간이었다. 채이스는 1948년 12월 12일 돈암동교회의 집회소인 개인주택 2층이 너무 협소하여 70-80명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집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를 협조하였다.

채이스가 1947년 1월 중순에 서울에 도착하여 잠시 머문 후 3월 1일 미국으로 떠난

수개월 후에 일본 큐슈에서 복무하던 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이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을 오게 되었고, 1947년 후반부터 1948년 사이에 채이스 선교사의 부재를 메울 때 최상현(통역)의 협력이 컸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겨자씨이자 두 감람나무였던 최상현과 성낙소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로 채이스가 단기방문으로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돈암동교회(최상현 목사, 침례 14명)와 필운동교회(성낙소 목사, 침례 30명)뿐 아니라, 위동교회(성수경 목사, 침례 8명), 공덕교회(백낙중 목사, 침례 19명), 용산교회(이난기 목사, 침례 28명), 아현동교회(윤낙영 목사, 침례 17명)로 발전할 수 있었다.

존 J. 힐(John J. Hill) 선교사 가족이 1949년 2월 18일 서울에 도착하고, 채이스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무렵 최상현 목사는 만 57세였으며,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이듬해 1950년 6·25사변이 터지고 그해 8월 최상현은 공산군에 의해 납치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남은 가족들은 1·4후퇴 때 부강교회(김은석 목사)로 피난하였다. 최윤숙 권사는 그 때의 일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남동생들, 여동생들과 함께 나는 그 교회에서 피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먹이셨다.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였다[〈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 392]. 최상현이 공산군에 피체된 계기에 대해서 아들 최윤권은 진술하기를, “내가 공산군에게 체포되었을 때, 내 아버지는 자신을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알았으면서도 혼자서 나의 불공정한 체포에 탄원하려고 중앙 공산당 사무실로 왔다. 공산당정부는 그의 이런 행위가 동기가 되어 마침내 그를 납치했다”고 추정하였다[〈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 400]. 아버지 목사에 대한 자녀들의 존경과 감사가 가득한 회고(回顧)와 자녀들이 대를 이어 아버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헌신한 것을 볼 때, 최상현은 과연 가문전도에도 크게 성공한 훌륭한 목회자였다.

### 3)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필운동교회)  
한문수학, 경성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동경사목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역임

성낙소(成樂紹)는 1890년(호적상으로는 1893/명치 26년) 5월 16일 출생하여 1964년 11월 30일 별세하였다.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3의 4번지이다. 1900년 3월부터 1912년 11월까지 한문을 수학하였고, 1915년 11월부터 1916년 8월까지 경성구세군사관학교, 1920년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성서학원(아현동 경성성서학원), 1938년부터 1940년까지 '기독교회선교부' 한국인 성경훈련원에서 수학(修學)하였다.

성낙소는 홍주성 의병군에 가담하려했다가 기회를 놓치자, 구세군에 가입하였다. 성낙소는 십대 후반,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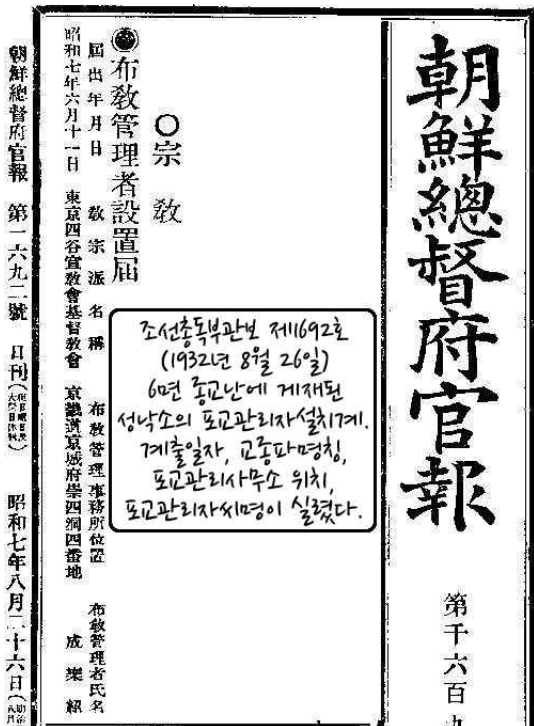
1월부터 9월 사임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그리고 성낙소는 1931년 9월(신미년) 하순경에 장로교 목사 박흥순을 대신하여 동경 요츠야선교부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고 귀국하였다. 성낙소 목사가 서둘러 한국에 아주 귀국한 이유는 한국에 남아 있는 사모의 병환 때문이었다.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의교회’ 곧 ‘기독교회’라는 교단명칭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신고)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는 자서전 <기독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낙소는 1931년(신미년) 9월 하순경에 귀국하여 본가에서 1개월 간 휴양하고, 그 해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 포교를 하려고 한 즉, 일제정책에는 포교하려면, 조선 총독부 종교과에 포교계를 내어 등록된 후에야 하는 고로 포교계를 내는데, 교회 명칭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매우 지연된 것은 기독교의 교회라 함은 각 교파도 기독교의 교회이니, 기독교의 어떤 파라고 하라 하므로, 성낙소의 답은 우리 교회는 교파가 아니고 초대의 교회가 기독교의 교회이며, 기독교의 각 파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니, 제출한대로 등록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수삼 개월을 힐난하다가 관리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 성목사의 임명장을 휴대하고 출두하라고 하므로 지참하였더니, 열람한 결과 동경 요츠야선교회(東京四谷宣教會) 기독교회 선교사 커닝함이라고 싸인한 것을 보고는 이와 같이 증정(證正)하여 제출하라고 하기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라는 명칭으로 제출하였더니 즉시로 등록되어 포교를 활발히 하여 계동, 공덕동, 청엽동, 내수동, 인천 송현동 외 2곳과 평북 구성(平北 龜城)에 기독교회를 1년 반 동안 7개 교회를 설립하였고, 부여 지방에는 기성(既成)한 교회였다.

1932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설치계에 관한 건>(관리번호 CJA0004799, 문서번호 88-69, 286면) 및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사원 창립허가 포교관리 기타의 건(소화 7년)>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에서 교단이름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성낙소”라고 기재하였고,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승4동 4번지”로 적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는 포교방법으로 “포교소에서 설교, 순회포교(각 지방 순회하여 전도 강연, 사경회 및 부흥회), 가정전도(가정을 방문하여 성서, 구원, 기도회 인도), 통신포교 및 노방전도”라고 기재하였고, 포교관리자의 권한으로 “총회, 연회, 지방회 의장, 목사안수



레 집행, 교역자 임명 등을 관리 감독 등”이라고 적었다.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면서 요츠야선교부가 1932년 2월 8일 발행하고 윌리엄 D. 커닝햄이 서명한, “경성 계동 127번지의 성낙소 목사를 박흥순 목사를 대신해서 한국 사역자로 임명한다”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포교관리자설치계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접수된 날짜는 1932년 6월 11일이었고, 심사와 조사를 마치고 결제가 난 날짜는 동년 8월 6일이었으며, 그 내용이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날짜는 8월 26일이었다.

성낙소의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접수 받자마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25일 일본 동경 문부성 종교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동경시 사곡구 중정 6번지)가 정규 수속을 받아 포교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취조하여 결과를 알려달라는 조회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일본 문부성 종교과에서는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 조회를 요청한 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관중 34호 소하 7년 7월 11일).

문 부 성  
관중34호  
1932년(소화7년) 7월 11일  
문부성 종교과

조선총독부 귀중

6월 27일부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상기의 교회는 당국에 있어서 기독교회의 일파로써 취급하는 것으로 신청한바와 같이 기독교의 일파로써의 승인은 법규상 그런 수속이 정해져있지 않아도 포교 병교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수속을 끝내고 포교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회답함.

조선총독부는 조회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8월 20일에 다음과 같은 ‘관보 게재안’을 작성하였다.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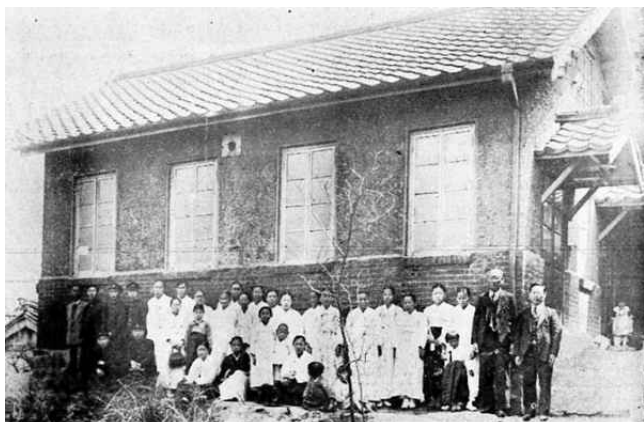
경기도 경성부 송4동 4번지 성낙소에 의해 상기 제목의 신고서를 별지대로 제출한 결과, 동파의 본국의 본부는 내지 동경시에 소재하며, 이것의 연장으로 포교하는 취지에 대하여 만일을 위해 문부성에 조회 한 결과, 실제로 기독교회의 일파로 취급하여 포교 병교회 등에 각각 정당히 수속을 마치고 포교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상기와 같이 수리하여 하기의 공고와 같이 결정됨.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는 1932년 8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그리고 이 교단명칭은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 목사에 의해서 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바꿨다 <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한편 1935년 3월 20일경 한국에 도착한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는 입국 한 달 만인 1935년 4월 2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개로 조선총독

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란 교단명칭으로 포교관리자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1936년 11월 7일에 입국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이것을 이어받아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제출하여 제2대 기독교회포교관리자가 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또 채이스는 1937년에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다.

다른 한편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관리자 이인범으로부터 포교자폐지와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신고)된 모든 것들을 세탁당한 후<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성낙소는 목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적선정에 있던 경성기독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였다. 다만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만 두었지, 내용적으로는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을 시행하였다. 이런 정황 때문에 성낙소는 1937년 4월에 김문화(金文和) 목사로부터 채이스 가족이 선교사로 서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만나지 않고 있다가 12월 24일에서야 비로소 10대 아들 성수경을 채이스에게 보내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성낙소 목사의 내수정기독교회(1939년)

그리고 성낙소가 채이스와 재회한 것은 1938년 전반기였다. 성낙소는 1938년 11월 4일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1939년 초에 제3교회로 편입하였으며, 1940년 3월 25일까지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신약성경교회를 연구하였다<“May I Introduce to You,” Korean Messenger(KM), 1949년 3월>과 <“After Two Years,”

*Christian Standard(CS)*, 18 March 1939: 262; 17 June 1939: 594; “Three Evangelists,” *CS*, 8 July 1939: 666>.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9-10면(소화 14년 6월 23일)>.

성낙소 목사와 내수정(46년부터 필운동)교회는 모든 면에서 가장 확실히 신약성경교회를 실천하였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존 채이스와 존 힐이 미국의 형제들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유능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것은 성낙소와 필운동교회가 내세울만한 업적이다.

성낙소가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관리자 이인범으로부터 포교자폐지를 당한 후 적선정에 있던 경성기독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온 때는 늦어도 1937년경으로 볼 수 있다. 조선야소교회가 1938년 3월 31일 성낙소(경기도 경

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와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 및 경성교회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선정계<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면(소화 15년 7월 8일)>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역자 측에 따르면, 이 건물을 동석기 목사가 3,000원에 매입한 것은 1939년 9월이었다. 동석기는 이 건물을 성낙소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여 “1945년 9월 내수동교회를 시작하였다”[박규현(1962),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그리스도의 교회>2권: 19-20]. 그리고 경성교회가 1939년 초에 ‘기독교회선교부’의 제3교회가 되면서 기독교회 내수정교회로 바꿨다. 채이스가 1941년 2월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한 달간 머물면서 촬영한 3월 10일자 사진에는 내수정교회 제2주년으로 되어 있어서[오수강,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6] 성낙소 목사가 조선야소교회를 떠나 내수정기독교회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39년 초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그해 9월 이후에 동석기 목사로부터 내수동 106번지 건물을 임대하여 해방 직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1949년말-50년초)

성낙소의 내수정기독교회는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1941년 후반기에 폐쇄당하였다. 이후 성낙소는 매주일 예배와 주의 만찬을 비밀리에 진행하던 중에 1943년에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에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7월 7일 옮겨간 후[<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202] 해방 후 그곳에

내수정교회를 복원하였고, 이듬해 1946년에 개명하여 본격적으로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 시대를 열었다.

‘그리스도의교회’라는 명칭이 문서에 쓰인 가장 이른 시기도 이때 곧 1946년 8월이었다. 성낙소 목사가 작성한 ‘그리스도의교회 합동 선언문’(서울 사직공원 내 그리스도 의교회 성낙소 선언서)에서였다. 다시 성낙소는 1952년 7월 3일에 발행한 책, <신약교회 목회학>(그리스도교회신학교출판부)에서도 ‘그리스도의교회’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 (1) 1946년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 선언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신 교회로 오늘날 각각 분열된 기독교 각 교파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도록 주 예수의 성지를 순용하여 합동 통일 운동을 선언하노라.

요한복음 17장은 주 기도문인 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아시는 바인 동시에 11절 하반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사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하나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이 됨 같이하게 하옵소서” 하시고, 21절에 “저희로 하여금 다 하나이 되게 하사” 하시고 또 23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화를 내가 저희에게 주어 하나이 되게 하기를 아버지



성약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팔운동교회)  
한문수학, 경성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동경사목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사 역임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오니." 이와 같이 3차나 모든 신자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한가지 말로하고 상호 분쟁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히 합하라." 하였고, 또 12-13절에 "이는 무타(無他)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여럿이 되며, 바울이 어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하시었으니, 이는 신약시대부터 교회분열이 생길 위험성을 경계함이다. 지금은 모든 신자들이 각각 말하되, 나는 회람교에 속한 자요, 나는 카톨릭에 속한 자요, 나는 성공회에 속한 자요, 나는 장로교에 속한 자요, 나는 감리교에 속한 자요, 나는 성결교회에 속한 자요, 나는 구세군에 속한 자요, 기타 각 교파에 속한 자라하고 그 단체의 헌법과 장정 규칙을 존중시하고, 성서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여 분열됨으로써 분쟁하는 것은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니, 성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구분 설명이 요하지 않는다. 만일 교파 자체로나 신자 자신으로서 합동 통일을 반대하거나 부정한다면, 주님의 기도를 무시하는 자요, 성 바울 사도의 합동 교훈을 부인하는 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장림을 부인할 신자나 교파는 없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기약이 왔은즉, 다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약이 찰 때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여야 한다" 고하였으니, 이제 기약이 찬 때가 왔다. 만물도 통일할 것인데, 그리스도 신자가 통일치 못하면 만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다시 조선교단의 실정을 살펴보면, 우리 조선의 각 교파나 교회가 악마 왜정시대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日本基督教 朝鮮教團)이라는 명칭으로 합동 통일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마귀의 명령으로 합동하여 신사참배하는데 통일 공작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즉 악마에게는 굴복하여 신사참배의 합동 통일은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각 교파 신도의 통일을 부인할 수 있을까? 만일 부인한다면, 주님의 성지인 성경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다. 삼가 조심하라. 그런즉 합동 통일을 함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덮어놓고 합동하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자.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자면, 신약시대의 교회를 찾아야 한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신약성경 중에서 찾아야 한다.

1. 교회 창립자와 머리를 찾자 -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마 16:18; 엠 5:23). 각 교파의 창립자와 머리는 누구인가? 카톨릭은 저스테니안, 성공회는 헨리 8세, 루터교는 마틴 루터, 침례교는 코날드 그레벨, 장로교는 존 낙스, 칼빈교는 칼빈,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구세군은 윌리엄 뿌드, 성결교는 카우만이다.
2. 교회 명칭과 터를 찾자 -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른 이름이며, 그리스도의 터는 그리스도이다(마 16:18; 롬 16:16; 고전 3:11). 그러나 각 교파의 명칭은 성경에 전혀 없다.
3. 교인의 명칭을 찾자 - 오직 그리스도인이라(행 11:26; 갈 2:24; 벧전 4:16). 그러나 각 교파교인의 명칭은 성경에 없다(장로교인, 감리교인 등 . . .).
4. 교인이 되는 방법을 찾자 - ㄱ) 믿고 침례받음(마 28:19; 막 16:16). ㄴ) 회개하고 침례받음(행 2:38). ㄷ) 신앙을 고백한다(행 8:37). 그런즉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으면 사죄 구원하는 동시에 성신을 선물로 받는다. 침례는 죄의 몸이 죽고 부활과 신생을 얻는다(롬 6:4; 골 2:2). 물과 성신으로 중생한다(요 3:5). 약식 세례는 성경에 없다. 이는 기원 753년에 로마 법왕 스티븐 2세가 애돌프스의 집에 시작된 것이다.
5. 침례는 누가 행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찾자 - 목사, 집사, 성도들이다. 침례받는 자는 누구나 행할 수 있다(행 2:38-41; 8:38; 9:17-18). 이상은 사도, 집사 빌립이, 성도 아나니아가 시행하였음. 목사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교파들의 주장이다.

6.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일을 찾자. 칠일 중 첫날은 주일이요, 일요일이 아니다(행 2:41-42; 20:7).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일곱째 안식일 다음날인 오순절날 성령강림하신 날이요,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 명이 침례받아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 주일이요,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다.

7. 신약시대 교회에서 주일을 예배 일로 지켰는가?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다(행 2:41-42; 20:7). 주일에 주의 만찬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안식일을 지켜 유대교인 율법으로 돌아감이 어떨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가 아니다.

8.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성경만 믿는다. 성경 이외에 헌법이나 규칙은 죄가 된다(계 22:18). 이상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거나 깊이 연구하시려면 성경에 나타난 신약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 교파와 교인들이여 우리 모두 교회의 합동 통일 운동을 위하여 힘을 합칩시다. 다른 교파에서 신학을 마친 교역자들은 우리 신학 별과를 단기로 수양하니 같이 합시다. 환영합니다.

서기 1946년 8월 일  
서울 사직공원 내 그리스도의 교회 성낙소 선언서

필운동교회는 해방직후까지 '기독교회선교부'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은 자기 건물을 가진 유일한 교회였다. 그 덕분에 존 힐 선교사는 1949년 2월 18일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연지동의 임대주택에서 개교한 신학교를 이곳 필운동교회로 옮겨 1950년 6월 25일전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단기 입국했을 때 성낙소 목사는 만 58세였다. 필운동교회는 1948년 11월 21일 주일 오후에 채이스의 한국방문환영회를 성대하게 열어주었다. 또 이 무렵 필운동교회는 아현동교회의 목사 윤낙영의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었다. 힐은 1949년 전반기경에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때 67명이 참석하였다고 했다(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S, 25 June 1949: 405).

## (2) <신약교회 목회학>에 나타난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

성낙소 목사의 저술에는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자필 자서전, 1958년경)>가 있고, 1953년 6월 10일 인쇄되어 동년 7월 3일 발행된 <신약교회 목회학>이 있다. <신약교회 목회학>은 서언부터 목차까지가 8쪽, 내용이 282쪽이며, 책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12.5, 17센티미터이다. 본서는 활자(活字)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筆寫) 인쇄본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 책의 제목이 '신약교회 목회학'(The New Testament Church Pastoral Theology)이라고 한 점이다. 책의 제목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성낙소는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성격이 '신약성경교회'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과 본서를 통해서 볼 때, 성낙소는 당대에 그리스도(인)의교회운동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학지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신약교회 목회학>에 나타난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聖經中에 있는 聖禮를 行할 때에는 聖經中에 記한 法을 依할지니, 何敎派立法이나 何人의 意見이나 方便을 推尋하지 말고 聖書에 根據하여 如何히 할지니라(제12장, 2절, 3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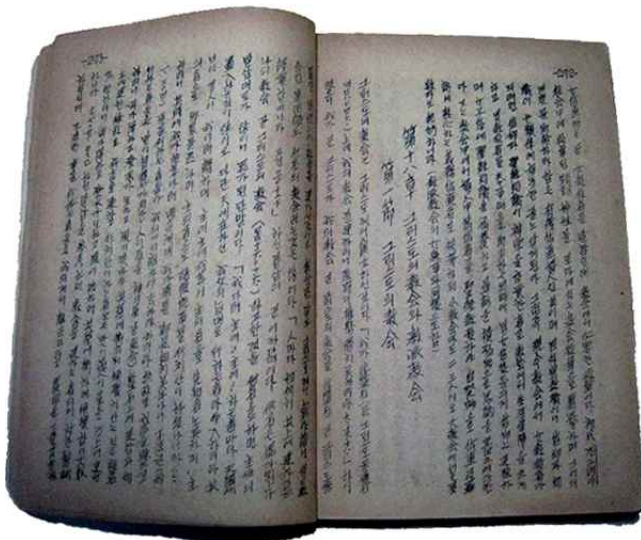
3.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 ‘제12장 목회자와 성례급예식(聖禮及禮式), 제2절 침례(浸禮)’에서 약식세례는 서기 753년에 시작된 것으로서 “일종(一種) 허명(虛名)의 의식화하여진 것”이므로 “차(此)는 성경위반이다.”고 하였다.

둘째, 침례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믿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誰든지 福音을 聽하고, 覺而信主하고, 過去 不信 不義 不法 不行과 其他諸般 罪惡을 眞心으로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할 수 있고(제12장, 2절, 1조).

셋째, 침례는 죄로 물든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물속에 장사하였다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여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 목회학>(1953년 7월 3일 발행)  
'제12장 그리스도의교회와 교파교회' 272-3쪽 부분

罪의 몸은 十字架에 釘死하고, 水中에 葬事하였다가 主任의 復活에 合하여 水과 聖神을 重生(新生)하여 上帝의 子女로 道の 乳으로 長成聖潔하나니(제12장, 2절, 1조).

넷째, 침례는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합당하게 여기셨으며, 십자가에서 고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대(大)사명(使命)이며, 친히 아끼시고, 세우시고, 명령하셨으므로, 인간이 감(敢)히 변개(變改)치 못할 성례(聖禮)임을 피력 하였다.

浸禮를 主께서 當身이 親愛하시고 立하시고 命令하였으니 人間으로서는 敢히 變치 못할 것이요, 變치 못할지니라(제12장, 2절, 2조).

다섯째,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한 생명(生命)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수정, 배아, 태아, 출산, 성장의 과정을 차례로 거치게 된다. 수정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배아단계나 태아단계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정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

이 필수적이다. 또 출산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죄(赦罪)의 구원도 믿음만으로 혹은 회개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성낙소 목사는 이런 뜻으로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救援이 곧 赦罪이다. 信仰하고 浸禮를 受하는 人은 救援을 得할 것이오 하였으니, 信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又是 “悔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名으로 浸禮를 受하고 罪赦함을 得하라. 然하면, 恩惠의 聖神을 受하리니” 하였으니, 悔改만 하면 다 된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然則 信仰하고,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하여야, 救援을 곧 赦罪를 得할 뿐만 안이라, 恩惠로 聖神을 受한다고 主任과 使徒 배드로가 有力하게 말씀하시였다(제12장, 2절, 2조).

여섯째, 그리스도인 침례를 “중생(重生)의 침례,” “죄 사함과 성신을 수(受)하는(행 2:38)” 침례로 인식하였다. 또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막 16:16), 죄사(罪赦)함을 받고(행 2:38), 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롬 6:3-7), 부활하고(고전 15:29), 중생하고(롬 6:5, 골 2:12, 딤후 3:5, 행 2:38), 그리스도로 옷 입고(갈 3:27),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왕(尋往)하고(벧전 3:21), 성령을 선물로 받는(행 2:38) 유익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의 敎는 主 여호와 하나님 創造主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十字架에 犧牲하시고 復活하사 우리 人類를 贖罪救靈의 光明이 照하여 誰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悔改浸禮를 받으면 聖神이 即時 內住한 重生者가 主의 名으로 祈禱하면 信仰이 점점 長成하여 聖潔의 生活을 할 것이오, 聖神의 結果가 있어야 한다. 異蹟은 赦罪重生의 大하고 聖經에만 있는 異蹟, 요나의 異蹟과 같이 水中에서 重生의 異蹟이다.(제6장, 2절, 8조, 1)

일곱째, 침례의 집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신도일지라도 신앙생활이 무흠하면 집행할 수 있음을 성경적인 전거(典據)를 들어 설명하였다.

浸禮 執行者는 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이 聖書中에서 無欠하고, 聖神이 充滿者면 執行할 수 있음. 牧師라도 信仰生活에 聖書的 欠陷이 有한 者는 執禮資格을 喪失하였으므로 執行할 수 없을 것이다. 牧師나 長老나 執事나 平信徒나 聖書的 信仰生活이 無欠한 者가 執行함이 可하고, 牧師만 專行的으로 執行權을 聖書中에 주지 안이하였다(제12장, 2절, 3조, 1).

여덟째, 어떠한 경우에도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유아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므로 침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幼兒는 天國에 入할 資格이 有함은 예수님이 證明하셨다(太 18:3). 又난 病中에 主의 福音을 覺悟하고 確實한 信仰과 悔改와 告白이 分明하면, 浸禮를 施할 수 있으나, 危篤中 不完全意識으로 信主한다는 것으로 로마 天主教式으로 하면 안 된다. 浸禮가 안이고 略式洗禮는 容納할 聖書中에 條件이 없는 까닭이다. 囚獄罪人의게 傳道하여 確實한 信仰 悔改가 分明하면,

何人 男女를 莫論하고 獄官의 承認을 請하여 執行할 수 있나니라(제12장, 2절, 3조, 2).

#### 4. 주의 만찬 중심의 주일예배를 강조하였다.

첫째, 일요일을 성찬예배일로 인식하였다(제12장, 3절, 1조). 구약교회의 5대 제법(祭法) 곧 번제(燔祭), 평제(平祭), 소제(素祭), 죄제(罪祭), 건제(愆祭)가 신약교회에서는 찬송, 기도, 헌금, 성찬, 성경설교로 바뀌었으며, 안식일 대신 7일중 수일(首日) 즉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으며, “주님이 일차(一次) 자기를 희생의 제사를 헌(獻)하사 죄를 속(贖)하시고(히 9:26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님의 성찬예배로 5대 제전(祭典)을 대신하였다.”고 하였다. 또 “구약예전은 신약의 영자(影子, 그림자)니, 할례는 신(身)의 사(事)요, 침례는 신심(身心)의 사(事)이며, 제례는 의식(儀式)이요, 성찬예배는 영(靈)의 사(事)이다.”고 하였다(제12장, 1절).

둘째, 초대교회에서의 주일예배는 떡을 떼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3)주의 晚餐 - 主日 禮拜는 初代教會 創立日로부터 始作한바 主님의 死中復活을 記念하는 無酵餅과 葡萄汁羹으로 主님의 살과 피를 代身하여 祝辭하고 浸禮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參與하여 主님의 十字架 犧牲祭를 記念하는 聖禮이니 初代教會에서 安息日을 바리고 主日禮拜가 主의 晚餐으로 創立하였다. “七日中 首일에 我等이 餅을 擘하려하여 集하였더니”(行 20:7). 日曜集會는 餅을 擘하기 위하여 모였음이라. “恒常 使徒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交際하며 餅을 떼어 먹으며 祈禱하기를 務하더라”(行 2:42). 此는 곧 五旬節에 聖神降臨日, 그리스도인 浸禮 始作日, 그리스도의 教會創立日, 主日禮拜에 聖餐式한 것이다. 故로 모든 集會中에 主日禮拜가 此聖禮로 由하여 聖禮中 首位되는 聖會로 嚴守하는 것이다(제6장, 2절, 6조, 1).

셋째,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신 것임을 인식하였다.

使徒들이 主의 遺言의 命令을 受하였음으로 教會를 始作하면서 主日인 日曜日集會는 主의 晚餐禮拜로 實行順從한 것을 聖書中에서 明白히 發見하였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教會에서는 그대로 聖書의 命令을 遵行하여 安息日이 안이고 곧 禧日에 神靈과 眞理인 十字架의 記念으로 聖餐의 禮拜를 奉行할지니라(제12장, 3절, 1조, 5).

넷째, 주의 만찬의 집행은 목사, 장로, 집사가 집행할 것이나, 만일 교직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집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新約時代 教會創立日인 日曜일에 主님의 遺言이며 命令을 受한 使徒들이 遵守하여 執行하였고(行 2:42), 바울 使徒도 主께 受한 命令을(고전 11:23) 各教會에서 執行하도록 하였으니, 牧師, 長老, 執事가 執行할 것이요, 萬一 教職者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主일에 執行하면 된다. 主일은 浸禮 받은 信者가 禮拜한다. 緣故로 初代教會에서는 安息日 翌일은 七日中 首일에 餅을 擘하는 禮拜集會(行 20:7)하였음으로, 安息日이 廢하고 主日禮拜가 始作된 것이니, 家庭에서도 信者들이 主日禮拜에 餅을 誠意로 擘하여 食하고 上帝를 讚頌하였다. 今日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教會에서 主일은 聖餐禮拜인 故로 牧師가 없는 教會에서는 平信徒들만 모여서 信徒中의 一人이 集禮한다. 大東亞戰爭時와 6·25事變 當時에 各家庭에서 或防空壕에서 山野江邊에서 主일을 當하면 家族的으로 個人的으로 聖餐禮拜를 主日마다 奉行하였다. 牧師

가 없으면 家族 個人이 禮拜하지 못할 法이 聖書中에 無한 同時에 信者가 集禮할 것이니라 (제12장, 3절, 2조, 1).

다섯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해서 논하였다.

主日은 男女聖徒가 여호와 上帝께 神靈과 眞理로서 聖晚餐禮拜를 奉行하는 것이 聖旨의 禮典이다. 그러나 聖書中에 注意의 警戒가 嚴然하다(고전 11:30-32). 또 그렇다고 해서 主日 聖晚餐禮拜를 廢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然則 聖書대로 資格者는 堂堂히 參與할 것이니라. 1) 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生涯中에 있는 者. 2)良心으로 回顧 곧 自醒하고 悔改한 後에야 食하고 飲할 것이오. 3)주의 몸과 피를 分辨하여 十字架의 釘死와 復活을 記念할 者이니라. 以上 三種의 以外에 處地에서는 絶對로 參與치 못할지니라(제12장, 3절, 2조, 2).

제대로 된 신학서적 한 권 없던 70여 년 전, 그것도 6·25사변 중, 성낙소 목사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신념이 이룩했을진대 석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가 넘쳐나는 오늘에는 그 수준이 어떠해야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낙소 정도의 인식을 가진 목회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한 신학도의 탄식을 들어보자.

....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을 만나면, 그렇게 깊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겐 큰 교만이자 정죄 받아 마땅할 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들과의 교제가 망설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냥 어린 후배의 푸념으로 이해해 주시길^^) ....

1924년 이후 척박한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개척하고 일궈낸 선배 목사들의 열정과 신념은 대단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모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등 타 교단에서 환원한 분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없어서였지만, 왜 오늘날에서조차 우리 가운데서 환원 2-3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교회를 너무 모른다는 점이고, 그리스도(인)의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은석, 동석기, 강명석, 이신과 같은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인물들의 역량(力量)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고, 오늘의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기에 충분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신약성경교회의 선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깊은 영성과 복음에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는다.

#### 4) 김문화 목사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1933년 10월과 11월호에 실린 채이스가 쓴 글에 김문화(金文和) 목사의 영문이름 이니셜(M. W. Kim)로 볼 수 있는 인물이 언급되



김문화 목사(1940년 초, 산동암성교회)

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그는 일본 요츠야선교부 소속의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한국의 교회개척지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며, 그해 8월에 7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만일 이 사람이 김문화였다면, 그가 어떻게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의 초기 사역자가 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김문화는 장로교 출신의 목사로서 성낙소와 함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사역자였으나 이인범 목사의 보복으로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포교자 자격을 잃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김문화는 1937년 전반기에 채이스와 재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문화는 1937년 6월 7일 박판조와 함께 한강에서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채이스는 한국인성경훈련원에 성실히 출석하여 공부하는 장로교출신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연장자가 어느 날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저는 20여년 이상 많은 선생들로부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가 구원에 본질이라는 것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고 하였고, 장로교출신인 이 두 사람이 6월 7일 월요일에 침례를 받고자하여 한강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였다<“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S, 17 July 1937>. 김문화와 박판조는 장로교출신이었고 채이스의 학생들이었다. 그는 1937년 4월경에 성낙소 목사에게 채이스의 소식을 전하였고[‘제7장 기독교의 교회 선교사와 신학교 시작,’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1938년 1월경에 촬영한 한국인성경훈련원 제1회 2학기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채이스는 그를 김요한, 최상현, 박판조와는 달리 기독교회 목회자로는 소개하지 않았다. 그 때 김문화에게는 섬기고 있는 기독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1938년 2월호>.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3호 3면(소화 15년 3월 14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6호 2면(소화 15년 3월 18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6면(소화 15년 3월 30일)>. 1940년 가을에는 총독부가 소집한 각 교단 대표들의 모임에 최상현, 성낙소와 함께 참여하여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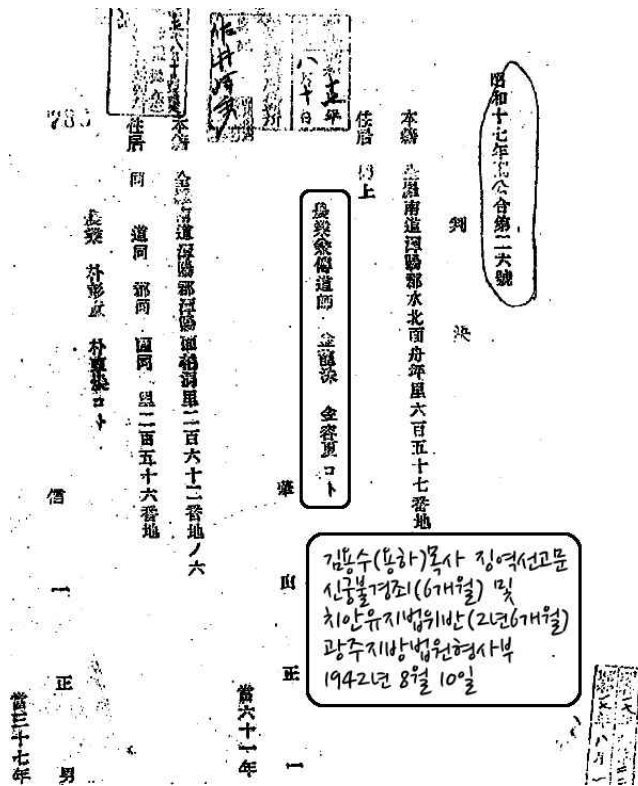
1940년대는 조선인들에게 매우 엄중하고 험난한 시기였다. 1941년 4월 1일 새로운 종교법의 시행으로 선교사들의 입국활동이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해 12월 7일에 태평양전쟁(1941-45년까지 연합국과 일본과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시기에 신사참배는 말할 것 없고, 행사 때마다 기미가요 합창, 동방요배, 전사 장병 묵도, 황국신민서사 낭독,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강요당하였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 일장기를 매달게

하였고, 1942년 이후에는 예배 시작 전에 천황 사진을 앞에 놓고 동방요배까지 강요하였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기독교회’ 곧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신사참배, 동방요배 및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 가입에 반대함으로써 체포되어 심문과 고문을 당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6월 30일에 포교자 및 포교소 폐지계를 제출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한국인 전령〉 1947년 5월호 ‘예전 사역자들과의 접촉’(Workers Contacted)에 따르면, 채이스는 1947년 1-2월 중 서울에 머무는 동안 예전의 동역자들과 접촉하려고 애썼는데, 김문화는 서울을 떠나 시골에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채이스는 김문화 목사의 부고를 접하게 되었다. 장례는 그의 아들의 집에서 이뤄졌고, 성낙소 목사가 주관하고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가 보조하였다. 김문화 목사는 사망하기 한 주전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청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훌륭한 설교가였다.

필자는 김문화 목사가 김동열 목사의 부친인가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김문화 목사가 김동열 목사의 부친이라고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289쪽)가 명기(明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부(可否)를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김동열의 부친은 김용수(金龍洙, 자: 용하/容夏)로서 전라남도 담양(潭陽) 사람이다. 국가공훈록과 조선총독부재판소 광주지방법원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김용수는 1882년 7월 7일생이며, 1957년 4월 28일에 별세하였다. 본적과 거주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水北面) 주평리(舟枰里) 657번지였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하여 1938년 평양신학교를 자퇴하고 동향인 박동환(평동) 및 조용택과 함께 낙향하였다는 글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박동향과 조용택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서 박용수가 3년형을 받을 때 각각 2년형을 받은 같은 지역의 목회자들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용수의 학력을 “무(無)”라고 적었다. 한 때 불교(佛敎)신앙을 갖기도 하였으나 1924(대정 13)년경 장로회파 야소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후 담양군

담양면의 집에서 농사일을 하며 전도포교에 종사하였다. 판결문에 김용수의 직업이 “농업겸전도사”라고 적힌 이유이다.

김용수는 전라남도 순창군(淳昌郡), 고창군(高敞郡), 추자도(楸子島), 제주도(濟州島) 등지에서 예수교의 순회전도사(巡廻傳道師)로 활동하다가 1935(소화 10)년경 담양으로 돌아와 포교활동 중에 일제가 강요하는 동방요배(東方遙拜)와 신사참배(神社參拜)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했다가 1938년 5월 20일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담양경찰서에 1개월간 구류 당하였다. 1938년 6월에 일본종교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신앙은 허구적인 것이고 위장된 것임을 역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 1939년 8월 10일에는 예수교 부흥회에서 ‘사후중생론’(死後重生論), 1939년 12월 4일에는 ‘천국총론’(天國總論), 1940년 5월 19일에는 ‘말세(末世)와 예수의 재림론(再臨論)’ 등을 주제로 일제의 멸망을 설교하였다. 이후 일제 경찰에 붙잡혀 문초(問招)를 받고 61세 때인 1942(소화 17)년 8월 10일 광주지방법원형사부에서 소위 “신궁불경죄”(神宮不敬罪)로 징역 6월형, 소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 총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판결문에 실린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국립대전현충원 공훈록보기;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김용수 등 판결문,’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국가공적개요에 김용수는 박동환(평동) 및 조용택과 함께 조선선교회(朝鮮宣教會) 전도사로 되어있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신고)된 교단들에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윌리엄 커닝햄 선교사)의 후원을 받았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가 유일하다. 김문화 목사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전신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 서울 아현동에서 포교활동을 하였으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로부터 1936년 9월 4일 포교폐지계를 제출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러나 김동열 목사의 부친인 김용수 목사는, 광주지방법원형사부의 징역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장로교회 목회자였다. 김용수는 1930-40년대 초 기간에 장로교 전도사로서 전라도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하였고, 김문화는 ‘기독교회’ 목사로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기독교회 선교부’에 소속되어 같은 기간에 경기도 경성부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이 점이 크게 다른 점이다. 김동열 목사는 부친 김용수가 장로회 소속 목회자였으나 세례를 매우 중요시 하여 김동열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영해(하2): 120>.

이밖에도 다른 점은 별세 일자이다. 국가공훈록에는 김용수의 별세 일자가 1957(혹은 1956)년 4월 28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문화의 별세 일자는 1949년 2월 초이다. 남아 있는 사진들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얼굴형은 거의 비슷한데 머리카락의 차이가 난다. 김용수는 머리카락이 많았던 반면, 김문화는 머리카락이 많지 않았다.

<한국인 전령, KM> 1949년 3월호의 내용은 대부분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낸 보고들로 채워졌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존 힐 선교사 가족이 1949년 2월 15일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이

고, 김문화 목사가 1949년 2월 초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이다. 채이스는 존 힐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KM, 1949년 3월호).

채이스 선교사는 김문화 목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바로 얼마 전 겪은 이번 주 가장 큰 손실은 김문화 목사의 서거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 그는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경의 명백하고 단순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그분의 아들의 집에서 성낙소 목사의 집례와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치러졌습니다<“A Great Loss,” KM, 1949년 3월호>.

김문화 목사의 별세 및 그가 김동열 목사의 부친 김용수(용하)라는 증언을 다음의 고리들로 연결해 볼 수는 있겠다. 첫째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도서출판 한림, 2006: 289)>가 김문화 목사를 김동열 목사의 부친으로 언급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김문화 목사의 별세 전인 1947-48년에 최상현, 성낙소, 할 마틴 군목이 부강교회에서 신약성경교회를 한 두 차례씩 강의한바가 있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지철희 목사가 “김동열 목사님의 부친은 순교를 하셨는데... 일제말엽 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투옥을 당하셨고, 많은 고문과 고통을 받던 중에 해방을 맞이하여 출감하셨는데, 오갈 때가 없어서 부강 그리스도의교회 사택에서 간호를 받으시면서 기거를 하실 때에 내가 딱 한번 뵈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내가 듣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아주 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시었다... 부강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순교를 하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알았다.”는 글을 남겼다는 점이다. 다만 지철휘 목사는 본명인 김용수 또는 이명(異名)인 김용하를 김용환으로 잘못 기억하였다.

김문화의 별세 소식은 채이스가 김문화의 장례를 치른 직후에 쓴 것이어서, 만일 김문화가 김용수와 동일인이라면, 채이스의 별세연도가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김동열은 1953-57년 사이에 신탄진에서 목회활동을 하였으나 이미 그 이전 1940년대 말부터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신화신학연구회의 백일집회들에 참여하였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교회순방에 나섰을 때, 4월 2일 월요일에 신탄진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담임목사가 김동열이었다. 3일 화요일에는 부강교회(김은석 목사)를 방문하였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김문화 목사와 김용수 목사가 별세한 장소는 신탄진교회이거나 부강교회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는 동역자들의 별세자 명단을 성경에 기입해 두었는데, 정찬성 목사(1957년 4월 25일), 김재순 목사(1958년 2월 26일), 강순명 목사(1959년 3월 12일)가 포함되었다. 심지어 이신 목사 부친(1954년 6월 16일)과 이종만 목사 모친(1957년 8월 14일)의 별세 일자까지 적어놓았다. 하지만 김은석은 1957년 4월 23일 목포로 내려가 28일에는 주일이었는데, 강진군 강진읍 용동면과 황동면에 있었으며, 5월 중순까지 전남지역에 머물며 집회를 인도하였다<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0: 50, 57, 196), <http://kccs.info/keskoreanpaul.pdf>>. 국가공훈록대로, 김용수 목사가 정찬성 목사의 별세 3일 후인 1957년 4월 28일에 별세하였다면, 김은석 목사가 몰랐거나 성경 메모에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 5) 박판조 목사



박판조 목사의 결혼사진(1938년 5월 3일)

박판조(朴判祚)는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보다 3살 어렸다. 박판조는 장로교신자였고, 채이스에게 추천될 당시 수년째 성서공회에 고용되어 있었다. 박판조는 채이스를 만나 한국인성경훈련원에 출석하던 중에 자청하여 1937년 6월 7일 김문화 목사와 함께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박판조는 이때 29살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채이스는 한국인성경훈련원에 성실히 출석하여 공부하는 장로교출신의 두 사람이 있는데, 6월 7일 월요일에 침례를 받고자하여 한강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였다<“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hristian Standard(CS)*, 17 July 1937: 6; “Korean Christian Mission Notes,” *CS*, 21 August 1937: 769>. 박판조는 침례를 받은 후에도 다니던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개월 후 박판조는 채이스에게 자기가 장로교회를 떠나겠다는 것과 복음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피력하였다. 그래서 박판조는 1937년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채이스는 그를 디모데가 될 재목으로 꼽았고, 마음을 준 젊고 능력 있는 일꾼이었다<“Korean Mustard Seeds,” *Korean Messenger(KM)*, December 1937: 3-4; “Introducing Pan Jo Pak of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CS*, 11 December 1937: 1154>.

박판조는 곧바로 김요한 목사의 신당정기독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938년 5월 3일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채이스는 이 당시 조선에서는 부모가 정해진 배필과 이유를 막론하고 혼인해야 했고, 박판조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정도 부유했다고 적었다. 또 채이스는 ‘한국인 겨자씨(Korean Mustard Seeds)’에서 박판조의 동생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하였다. 박판조의 동생이 전차운전사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열렬한 감리교신자였던 한 동료 학생이 박판조의 동생에게 ‘기독교회’(그리스도 의교회)를 단지 새로 생긴 이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박판조는 김요한 목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감리교 목사였고, 미국에서 7년 넘게 공부한 애국지사 김요한 목사가 나서서 이단이라고 말한 그 젊은이에게 그리스도(인)의교회를 설명하였더니, 그 젊은이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 후로 신당정기독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KM*, June 1938: 1, 3; “For This Cause,” *CS*, 2 July 1938: 657>.

박판조는 1939년에 김문화 목사가 담임을 맡았던 산돈암정기독교회를 개척하였고 동년에 정릉리기독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였다. 채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

조에 의거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4037호 12면(소화 15년 7월 6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5호 2-3면(소화 15년 7월 4일)>.

박판조는 채이스를 대신해서 1939년 6월 21일 새벽 6시에 부산에 도착한 존 힐(John J. Hill) 선교사 가족을 서울로 안내하였다. 존 힐 가족은 1939년 6월 1일 가노마루(Kano Maru)호를 타고 LA를 떠나 일본 요코하마와 시모노세키를 거쳐 21일 새벽 6시에 부산에 도착하였고, 박판조의 안내를 받아 오후 3시에 서울에 도착하였다<KM, 1939년 8월호>.

그리고 모든 교단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없는데다가 일제의 압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때에 채이스 선교사가 어렵게 재입국하여 1941년 2월 24일부터 한 달 남짓 머무는 동안에 박판조 목사는 선교사들의 공백 기간에 ‘기독교회선교부’의 회계와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박판조는 이듬해인 1942년에 일제가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적산(敵産)으로 선포하고 몰수하여 1943년에 임차인 전향섭에게 매도할 때까지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 입주하여 살면서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The Korean Messenger(Bristol, Tennessee, May 1941), Published in the Interest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 in Korea, by J. T. Chase, Editor and Publisher>.

이후 박판조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기독교교회에서 시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도리교회는 1940년 여름에 존 힐과 김요한 목사가 두 주간동안 인도한 집회가 끝날 무렵 달빛이 비치는 동해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 33인들로 세워진 교회였고, 이후에 최상현 목사가 협력한 교회였다[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썰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Responsive Koreans by John J. Hill Missionary to Korea,” CS, 15 February 1947: 118]. 초도리교회는 다른 기독교회들과 함께 1944년 6월 30일 포교자 및 포교소폐지계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존 채이스 선교사는 해방 후 박판조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소련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 머물며 한의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Workers Contacted,” KM, 1947년 5월호;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 6) 백낙중 목사

백낙중은 외국어학교를 졸업한 후 오랜 기간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부부가 다 교사였다. 백낙중은 당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 무렵에 교사였던 부인과 함께



백낙중 목사(1949년 12월 9일, 6.25때 피사)

30년 지기(知己) 최상현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도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태평양전쟁 직전까지 교편을 잡고 있던 기간에 시간을 쪼개서 근 4년간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박판조와 함께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백낙중은 1938년 1월경에 촬영된 한국인성경훈련원 학생들의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최상현 목사가 개척한 돈암정기독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존 J. 힐(John J. Hill) 선교사는 1972년에 남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 역사’에서 백낙중 목사가 왕십리기독교회를 시무하였다고 하였는데[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썰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된 왕십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조선총독부관보 제4162호 5면(소화 15년 12월 5일)>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기독교회는 1944년 6월 30일 일제에 의해 포교소폐지계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백낙중은 해방직후 자신이 세운 공립학교 교실에 공덕그리스도(인)의교회를 개척하였다.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태평양전쟁으로 백낙중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1948년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백낙중은 공덕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고 있었고, 교인들은 그가 세운 공명학교의 학생들이었으며, 집회소는 그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실이었다. 또 1949년 5월 8일 존 힐이 공덕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참석한 인원이 125명이었는데 소수의 성인남녀와 아이들과 백낙중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었다<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S, 25 June 1949: 405>.

백낙중은 존 힐이 1949년 2월 18일에 입국하여 연지동에서 개교했다가 학생이 많아져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로 옮긴 ‘한국기독교성경신학교’(Korean Christian Bible Seminary)의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949년 12월 9일자 사진들에 의하면, 이 신학교의 교수들은 존 힐, 성낙소, 최상현, 백낙중 네 사람이었고, 이때의 학생들 중에는 최춘선(목사, 애국지사), 오현팔(목사, 독립투사), 이흥식(전도자)도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열거된 한국인 교수들이 모두 존 T. 채이스(John T. Chase)가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교육하고 협조하여 신약성경교회를 개척하게 한 사람들이고, 일제의 탄압을 이기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상현 목사는 6·25전쟁 때 공산군에 납북되었고, 백낙중 목사는 공산군에 살해되었다. 최상현은 미군정 때 연락관을 지낸 인물이었고, 백낙중은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통역관으로 일한 교육가이자 목회자였다. 그런 그들의 경력이 공산군들에게 납북되고 살해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7) 성수경 목사



성수경 목사와 John and Wahneta Chase (1967년 4월)  
[오수강, <기독교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필운동교회, 2007)] February 1938>.

성수경 목사는 성낙소 목사의 아들이다. 1937년 12월 24일 아침에 아버지가 일본 요츠야선교부에서 존 채이스(John T. Chase)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들고 채이스를 찾아갔다. 성수경은 그 때부터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공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8년 1월경에 촬영된 한국인성경훈련원 학생들의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Korean Mustard Seeds,” Korean Messenger(KM), February 1938>.

채이스는 <한국인 전령> 1949년 3월호에서 성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성수경은 성낙소의 아들로서 29살이며,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다년간 한국인 중학교 교사였으나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고, 장차 자신의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는 유능한 일꾼이며,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필운동교회와 위동교회 사이를 아버지와 교대로 오가며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소년을 일곱 혹은 여덟 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May I Introduce to You,” KM, March 1949: 2>.

채이스가 성수경을 처음 만난 것은 1937년 12월 24일이었고, 1949년 3월에 29살이었으므로 채이스가 성수경을 처음 만났을 때 성수경의 나이는 17살 혹은 18살 때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년을 일곱 혹은 여덟 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우리는 이 소년을 열일곱 혹은 열여덟 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로 이해될 수 있다.

필운동교회는 성낙소 목사가 일제강점기 말엽 한약방(무면허)을 운영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중 1943년에 매입한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의 42평 초가로서 80여명이 앉을 수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채이스가 1947년에 방문했을 때 필운동교회는 옅은 흙벽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었으나 1948년 말과 1949년 초에 방문했을 때는 벽이 수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배처소가 필요했던 것은 다른 교회들과 다름이 없었다.

위동교회는 시골에 위치하였고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무렵 위동교회는 개척된 지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예배처소는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친구가 소유한 집이었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에 한국에 왔을 때, 성수경은 날조된 살인 누명을 쓰고 서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혐의를 벗고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몇 달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2년 후 성수경은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수감 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다. 성수경은 아버지 성낙소와 교

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위동교회를 섬겼다<“Come with Me,” KM, March 1949: 2>. 채이스 선교사가 단기방문으로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들은 소식은 필운동교회에서 30명, 위동교회에서 8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The Year 1948,” KM, March 1949: 1>.

성수경은 존 힐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32번지의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는 일에도 힘썼다. 존 채이스가 힘쓴 10여 년간의 피나는 노력과 존 힐과 성수경의 노력으로 ‘기독교회선교부’의 재산을 1952년 중반 경에 돌려받게 되었다. 그 때의 상황을 존 힐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1951년 7월 3일까지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필자도 바로 그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필자는 부산에서 고아원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 뵈려고 갔었을 때, 그분은 필자더러 서울에서 시작하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필자의 오랜 친구,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성수경을 찾았으며, 서대문 근처 송월동 32번지에 있었던 구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행하였습니다. 전향섭은 탄환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들고 우리를 쫓아왔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재산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향섭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약 일 년 후에 미국 대사관과 영국 해외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전씨를 몰아냈습니다. 그 대신 전씨는 정부가 일본인 자산에서 지불한 정착금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필자는 끝내 재산을 되찾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으며, 전쟁 중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마쳤습니다[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세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1950년대에 성수경은 존 힐을 도와 ‘기독교회선교부’ 고아원을 보살폈고, 1960년대 이후에는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 8) 이난기 목사



이난기 목사(동산교회)

이난기(李蘭基) 목사는 1941년에 회갑이었고, 1949년에는 68세였으므로 1881년생이었을 것이다. 이난기는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21년 11월 29일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북본정 남감리교회에 포교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 관보, 제 2525호 10면(大正10年 1月 14日)>, 1922년 11월 4일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거성리에 포교자거주지이전계가 제출되었으며<조선총독부 관보, 제3080호 6면(大正11年 11月 16日)>, 1923년 11월 1일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거성리 361번지에서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3403호 7면(大正12年 12月 15日)>. 1923년에 이난기 목사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거성리는 3·1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그 지역 사람 18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곳이다. 그

리고 1923년은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9월 1일부터 3-4주에 걸쳐서 재일조선인 수천여명이 억울하게 살육을 당한 해이다.



경성아현권성기독교회(1936년 3월 22일)  
중앙에 케닝햄과 헛치 선교사가 보인다. 이 여행이 케닝햄의 마지막 조선 방문이었다. 이 순방을 마치고 6월 24일 별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난기 목사를 위해서 포교계를 계출한 곳은 남감리교회가 아니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였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성결교 출신이었던 만큼, 감리교 출신 목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교회(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이난기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서울 제2교회를 개척한 때는 1923년 포교폐지를 당한 지 13년만인 1936년 곧 50대 중반 때였다.

1936년 말까지 서울에는 2개 교회만 있었다. 이난기는 개척교회를 위해 선교부의 지원 없이 건물을 구입하였고, 건물에 창을 덧대어 사람들이 마당에까지 앉을 수 있도록 집회장소를 넓혔다<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5월호)>. 그의 포교계가 계출된 주소는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였고, 1937년 11월 13일이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3019호 5면(소화12년 2월 9일)>. 그리고 1938년 8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53번지로 포교담임자선정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3567호 5면(소화13년 12월 8일)>.

194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새로운 종교법 때문에 선교후원이 불가능해지자 요츠야선교부는 이난기에게 9개월 치 임대료인 190엔을 한몫에 보내주었는데, 교회는 이 돈에 700엔을 보태 빛 890엔을 모두 갚고 예배당을 구입하였다. 또 회갑을 갓 넘긴 이난기 목사는 교회가 자신에게 사례비로 매월 20엔을 주고,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맙다는 인사편지를 선교부에 보냈다. 이난기 목사는 이 약속을 굳건히 지켰다. 도쿄 요츠야선교부는 이난기의 목회사례를 매우 고무적인 본보기로 여겼다<도쿄 그리스도인(1941년 5월호)>.

그리고 1944년 9월 30일 염리정교회 포교담임자가 이난기에서 유지욱으로 바뀌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5353호 1면(소화19년 12월 7일)>. 이난기 목사가 또 다시 포교를 폐지당한 것이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신신근(平山武雄)<조선총독부관보, 5020호, 14면(소화18년 10월 23일)>이 주도했을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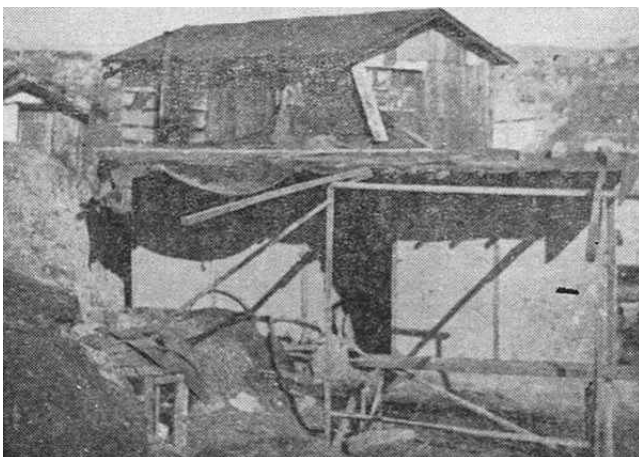
이난기 목사는 해방 후 다시 목회를 시작하였고, 1948년에 이난기와 그의 용산교회가 존 T. 채이스(John T. Chase)의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에 합류하였다<“The Year 1948,” The Korean Messenger(KM), March 1949: 1>.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이

난기는 만 68세였고, 신약성경교회에 대한 신념도 확고하였다. 용산교회는 탄탄한 교회로서 불교사원으로 일본인이 건축한 건물에서 모였다. 정부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채이스가 처음 방문해서 느낀 용산교회의 특징은 남녀가 구별된 자리에 앉았는데 한국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여성신도 숫자보다도 남성 신도가 더 많다는 점이었다 <“May I Introduce to You,” KM, March 1949: 2>.

## 9) 윤낙영 목사

윤낙영 목사는 1930-40년대 동안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윤낙영 목사는 1920년에 세례를 받고 동경성서학원(성결교)에서 공부하였고,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1927년 3월에 동경기독교교회(성결교)를 설립하여 28년까지 시무하였고 풍교교회와 3개의 기도처를 개설하였다<‘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http://kcm.kr/dic\\_view.php?nid=40150](http://kcm.kr/dic_view.php?nid=40150): 208.11.28 입력> 1930년대에는 그리스도(인)의교회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이 세운 도쿄 요츠야선교부에 고용되어 조선선교회 기독교회(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 산하 기독교회들(아현정, 영등포)을 개척하였다.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서울 제4교회였던 아현정기독교회는 윤낙영 목사에 의해서 12명이 침례를 받고 1938년 5월 8일 아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권신 여전도사가 이 교회를 도왔다. 그리고 나서 윤낙영은 영등포기독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정되었다. 이때 비로소 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는 1938년 8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 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윤낙영 목사가 세우신 아현동 그리스도(인)의교회(1948-49년) 밤 두칸짜리 2층이 집회소였고, 80여명이 출석하였다. 천정이 낮아 채이스 선교사는 상체를 세우지 못했고,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증평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그리고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윤낙영 목사와 그의 아현동교회는 성낙소의 인도로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에 합류되어 있었고 1940년대 말까지 아현동에서 목회하였다.

윤낙영 목사의 아현동 그리스도(인)의교회는 좁고 가파른 흙길 언덕에 있었다. 채이스는 1949년 1월 12일 수요일 밤에 설교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가야했

다. 감기에 걸린 상태인데다가 눈까지 쌓인 밤이었다. 교회에 오가는 길이 너무 더럽고 미끄러웠다. 그러나 일행이 도착할 무렵에 80여명의 교인들이 2층의 천정이 낮은 두 개의 방을 메우고 있었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천정이 너무 낮아 채이스는 상체를 꼳꼳이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마쳐야했고, 예배 후 아래층에서 다과를 먹는 중에 채이스는 예배가 파했는데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2층에 남아 여전히 힘차게 부르는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했다. 1949년 당시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가 윤낙영 목사의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었다<“Too Many People?” and “The Year 1948” and “May I Introduce to You,” Korea Messenger, 1949년 3월호>. 아현동 그리스도(인)교회의 윤낙영 목사는 1949년 전반기경에 기독교회선교부(존 J. 힐 선교사)가 85달러를 주고 매입한 만리동 소재의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여 교회를 새로 개척하였다<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25 June 1949: 405>.

김성철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윤낙영 목사(아현동교회)의 집이 병점과 오산사이에 있었다는 것과 김은석 목사(부강교회)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은석 목사의 서울집이 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는데, 1950년에 이화여자대학원에 다니던 윤낙영 목사의 큰 딸과 언니 뒷바라지를 하던 여동생이 건넌방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동년 8월에 12세의 김성철이 수개월간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가 겨우 회복된 양 아버지 김은석 목사를 모시고 피난을 가던 중에 병점과 오산사이에서 윤낙영 목사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둘째 딸만 집에 남아있고 가족이 모두 피신하였기에 만나지 못한바가 있었다[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84-86].

1952년 9월 14일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평택교회(평택시 비전동)를 개척하였고, 1954년 3월 사임하였다<‘교회연역,’ <http://www.ptbc1.net/main/sub.html?pageCode=4>>. 1955년 7월 6일에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영등포교회 제3대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여 1958년 전반기까지 목회하였다<‘교회연역,’ [http://youngchim.com/?page\\_id=609](http://youngchim.com/?page_id=609)>.